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유행어 사용인식 및 사용특성 연구*

천 정 민** · 김 화 수*** · 이 근 용****

대구대학교 · 대구대학교 · 대구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 성인과의 유행어 사용인식 및 사용특성 비교를 통해 그들의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살펴보고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성인 집단 각각 30명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성인 간의 유행어 사용인식에는 유행어 사용이유와 유행어 사용의 장점, 유행어 습득경로, 유행어 사용현상에 대한 생각에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두 집단 간 유행어 사용특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이해능력 및 유행어 표현능력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산출되었다. 셋째, 각 집단의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이해능력 및 표현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유행어 사용특성 각 하위변인 중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이해능력 간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유행어 친숙 정도와 상관없이 유행어의 함축적인 단어나 내포되어있는 뜻을 파악하려 하기 보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휘 그대로 이해하면서 유행어에 친숙해져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일반 성인과 다른 유행어 사용인식과 고유의 사용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원활한 또래 등과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해 적절한 유행어 이해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경도 지적장애 성인, 유행어, 유행어 사용인식, 유행어 사용특성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2016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박사과정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whasoolang@daum.net)

**** 공동저자,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응 능력을 필요로 하며 그 가운데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Brinton & Fujiki, 1991). 직업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 기술이 요구되며, 인간관계 기술 중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적장애인은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이 지체되거나 손상되어 언어 및 의사소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용언어 기술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학생들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인지 및 언어가 발달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메타언어(metalinguistic) 능력이 향상하게 된다. 반면 지적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유사한 언어발달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메타언어 능력과 관련된 은유 및 직유, 관용구, 속담 등과 같은 함축적 의미를 내포한 비유언어의 이해 및 표현에서는 특히 어려움을 보인다(Ezell & Goldstein, 2011). 일반 학생들의 청소년기는 비유언어가 절정에 이르는 기간으로 이 시기 동안 모호한 발화를 감지하는 능력, 농담과 비유적 언어의 사용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된다. 그들만의 은어와 비속어를 발달시키고, 어휘의 외연과 내포 의미를 발달시키며, 비유언어 발달을 기반으로 한 유머, 관용어, 은유, 농담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하지만 지적장애 학생들은 이러한 비유언어 및 메타언어의 성숙이 일반 학생들보다 늦거나 손상된 경우가 많다 (오진영, 이은주, 2014).

청소년기의 언어적 특징을 연구한 곽은하(2005)에 따르면 이 시기에 다양한 음운적·철자적·어휘적·의미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음운적으로는 음소 바꾸기와 음소 더하기, 음소 및 음절 줄이기, 음절 늘이기가 나타나고, 철자적으로는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붙여 적기, 이모티콘을 포함한 기호 적기 등을 보이며, 어휘·의미적으로는 신조어의 활발한 사용이나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 방언이나 은어 혹은 비속어, 의성어, 의태어, 감탄사의 사용을, 의미론적으로는 과장된 표현을 빈번히 사용한다고 하였다. 형태론적, 통사론적 특성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유행어 만들기, 문장성분의 생략, 조사 생략, 어순 바꾸기, 어법에 어긋난 문장 사용, 문장 종결 방식이나 경어법의 특수한 사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배희숙, 2016).

최근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유행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폭발적인 사용 증가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증가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를 생성하는 연령대는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20~30대 성인계층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경향신문, 2017), 동일한 연령대의 성인 지적장애인은 유행어와 관련이 있는 비유언어와 관용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장수영, 2016). 따라서 화자의 의도나 대화맥락의 숨겨진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행어 및 신조어는 문법적으로 분석하거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상위언어와 깊은 관련이 있어 지적장애인들이 이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상기한 사실을 토대로 유행어에 대한 이해는 경도 지적장애 학생들의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SNS 활동을 통한 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사회적 의사소통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도 지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군에 비해 구직 및 취업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 과정에서 비교적 일반인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유행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면 또래 등과의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사회에 적응하며 독립생활을 해야 하고, 의사소통 가운데 자기 결정 능력을 키워야 하는 초기 성인기의 지적장애인들에게는 교육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의사소통 영역에 있어서 화용적 어휘나 상황을 배우고, 사람들과 대화에서 주고받는 유행어까지도 이해하게 된다면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보다 원활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조어 및 유행어의 사용은 구성원들 사이에 관계를 견고하게 해주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집단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곽은하, 2006; 이화영, 1999).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유행어를 언어규범의 파괴 및 부정적 언어 사용 실태의 원인과 같은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를 지적장애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새로운 의사소통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유행어를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유행어 사용실태와 사용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생활연령이 일치하는 일반 성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생활연령이 일치하는 일반 성인 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두 집단 간 유행어 사용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두 집단 간 유행어 사용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 유행어 친숙도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유행어 이해능력 및 표현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셋째, 두 집단 간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이해능력 및 표현능력 간에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K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재학 중인 경도 지적장애 성인 30명과 K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관이나 병원에서 경도 지적장애인으로 진단받은 성인기의 학생
- 2)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쓰기검사 결과, 쓰기 오류(소리 나는 대로, 생략, 대치, 삽입)를 나타내기는 하나 자발적으로 쓰기가 가능한 학생
- 3)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결과, 표현언어 능력이 13세 이상인 학생

<표 1> 연구 대상자 정보

집단	평균 생활연령 (years)	분포			
		연령 (n)		성별 (n)	
		20~23	24~26	남	여
경도 지적장애 성인	21.6	27	3	19	11
일반 성인	21.7	30	·	12	18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일반 성인 집단 간 생활연령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모든 연령을 월령으로 계산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은 생활연령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373, p > .05$).

<표 2> 생활연령 동질성 검증 결과

	경도 지적장애 성인		일반 성인		t	p
	M	SD	M	SD		
생활연령	263.13	16.61	264.56	12.89	-.373	.710

2. 연구 도구

1) 대상자 선별 도구

(1)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쓰기검사(김동일, 2008)

본 연구에서는 경도 지적장애 학생들의 읽기, 쓰기 수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의 하위검사인 쓰기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대상자의 쓰기 수준의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2)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어휘 수준을 가진 경도 지적장애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어휘능력 지체 여부에 대한 정보 및 동일한 생활연령대의 대상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어휘 발달수준을 제시해준다.

2) 유행어 사용인식 및 사용특성 검사 도구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생활연령이 일치하는 일반 성인 집단 간 유행어 사용인식 및 사용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 연구(김태경 외, 2012; 윤자경, 2011; 이현나, 김화수, 2013)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으며,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난이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내용		문항 유형	문항 수
대상자 배경정보		단답식 문항	3
유행어 사용인식		진위형 문항(예/아니오) 및 객관식 문항	18
유행어 사용특성	유행어 친숙도 반응	진위형 문항(○/×)	100
	유행어 이해능력	두 가지 문장에 사용된 밑줄 친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 유행어적 의미를 구별하는 객관식 문항	10
		축약어 및 준말을 각각 본딤말로 바꾸어 쓰는 단답식 문항	10
	유행어 표현능력	제시된 유행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표현하는 서술형 문항a	10
		유행어가 포함된 어구나 문장을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표현하는 서술형 문항b	10
총 문항 수			161

(2) 유행어의 선정 기준

본 연구의 설문지에 사용된 유행어는 국립국어원(2014)의 2014년 신어 조사 보고서에 등재되거나 각종 온라인 신어사전에 등록된 유행어 중에서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이나 SNS,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 자주 등장하여 일반 성인들이 많이 접해보거나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유행어 위주로 선정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예비 실험을 거쳐 일반 성인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생소하다고 답한 유행어는 제외하였으며, 접미사가 붙은 형태의 유행어와 원형 유행어가 함께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원형 유행어를 선택하였다. 유행어 사용특성 문항에 쓰인 유행어 목록은 <부록 1>에 나타내었다.

(3) 설문지 문항의 채점 기준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에 대한 채점 및 배점 기준은 이현나, 김화수(2013)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문항의 채점 및 배점 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지 문항의 채점 및 배점 기준

문항 내용	채점 기준	배점 기준
유행어 친숙도 반응	‘○’로 표기하면 1점, ‘×’로 표기하면 0점 처리	하위문항 1개당 1점씩 배점하여 총점은 100점이 되도록 구성
유행어 이해능력	· 객관식 문항: 두 가지 문장에 사용된 밑줄 친 어휘 중 유행어적 의미를 고른 경우 1점, 사전적 의미를 고른 경우 0점 처리 · 단답식 문항: 축약어 및 준말을 정확하게 본딤말로 고쳐 쓴 경우 1점, 무응답이거나 다른 용어로 고쳐 쓴 경우 0점 처리	하위문항 1개당 1점씩 배점하여 총점은 20점이 되도록 구성
유행어 표현능력	· 서술형 문항a: 제시된 유행어가 사용되는 적합한 상황을 표현했을 경우 1점, 무응답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서술했을 경우 0점 처리 · 서술형 문항b: 유행어가 포함된 어구나 문장을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서술하였을 경우 1점, 무응답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어구나 문장을 서술했을 경우 0점 처리	하위문항 1개당 1점씩 배점하여 총점은 20점이 되도록 구성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어 조사 보고서에 등재되어 있는 유행어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반 성인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생소하다고 답한 유행어(갸모에, 꼬돌남, 맥덕, 스눅 등)는 제외하였다. 또한 예비 조사 결과에서 중복체크가 가장 많은 문항을 선정하여 본 설문지 문항에서 최대 2개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중복체크문항을 만들었다. 이후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서와 설문지를 50부 제작하여 2016년 1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도 지적장애 성인 대상자는 연구자와 1:1로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유행어 친숙도 반응 문항의 경우 연구자가 파워포인트로 각 하위문항을 한 슬라이드씩 만들어 넘기면서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간에 대상자가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는 경우에는 5분씩 쉬어가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점수를 채점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맞춤법이나 문법 등에 크게 제약을 두지 않고 유행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반응 처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가 모두 끝난 후, 설문지를 회수하여 응답이 불성실하고 누락된 문항을 포함한 설문지를 제외하였으며 최종 경도 지적장애 성인 30명과 일반 성인 30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4.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행어 사용인식 및 사용특성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선정하여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일반 성인 집단 각각의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이해능력, 유행어 표현능력 설문지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일치율은 두 평가자의 설문지 채점 문항 중 일치한 문항을 전체 문항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유행어 친숙도 반응의 일치율은 100%, 유행어 이해능력의 일치율은 98.2%, 유행어 표현능력의 일치율은 96.5%로 나타났다.

5.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IBM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1)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집단의 배경정보 및 유행어 사용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두 집단 간 유행어 사용특성의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3) 각 집단에서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이해능력, 유행어 표현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두 집단의 배경정보 및 유행어 사용인식

1) 유행어 사용빈도

〈표 5〉 유행어 사용빈도 (n=60)

하위문항	경도 지적장애 성인(n=30)	일반 성인(n=30)
	n(%)	n(%)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16.7)	1(3.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10)	2(6.7)
가끔 사용한다.	13(43.3)	17(56.7)
자주 사용한다.	9(30)	10(33.3)

두 집단의 유행어 사용빈도를 분석해본 결과, ‘가끔 사용한다.’ 문항이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 43.3%, 생활연령이 일치하는 일반 성인 집단 56.7%로 산출되어 두 집단 간 사용빈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유행어를 ‘자주 사용한다.’ 문항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유행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의 문항에서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일반 성인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의 경우 유행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2) 유행어 사용이유

〈표 6〉 유행어 사용이유 (n=60)

하위문항	경도 지적장애 성인(n=30)	일반 성인(n=30)
	n(%)	n(%)
주변 사람들이 사용해서	6(20)	5(16.7)
재미있게 말하고 싶어서	11(36.7)	3(10)
습관적으로 사용해서	4(13.3)	4(13.3)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기 쉬워서	5(16.7)	16(53.3)
유행에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4(13.3)	2(6.7)

5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2호)

유행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재미있게 말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 성인은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기 쉬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주변 사람들이 사용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3) 유행어 사용관계

<표 7> 유행어 사용관계(중복체크문항) (n=60)

하위문항	경도 지적장애 성인(n=30)	일반 성인(n=30)
	% (순위)	% (순위)
친구	70(1)	100(1)
선배·후배	36.7(2)	43.3(2)
형제·자매	20(3)	13.3(3)
기타	3.3(4)	3.3(4)

유행어를 사용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친구, 선·후배, 형제·자매,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에 대해서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인터넷 채팅 상대자라고 답하였고, 일반 성인은 커뮤니티를 함께하는 20대 또래라고 답하였다.

4) 유행어 사용 주요상황

<표 8> 유행어 사용 주요상황(중복체크문항) (n=60)

하위문항	경도 지적장애 성인(n=30)	일반 성인(n=30)
	% (순위)	% (순위)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46.7(1)	80(1)
일상생활의 대화중에	20(4)	66.7(2)
인터넷 게임을 할 때	30(2)	13.3(3)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등에 글을 남기거나 댓글을 달 때	16.7(5)	13.3(3)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을 때	20(4)	3.3(5)
그냥 생각날 때	26.7(3)	6.7(4)

유행어를 사용하는 주요상황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유행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넷 게임을 할 때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일상생활의 대화중에는 일반 성인이 유행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유행어 사용의 장점

<표 9> 유행어 사용의 장점(중복체크문항) (n=60)

하위문항	경도 지적장애 성인(n=30)	일반 성인(n=30)
	%(순위)	%(순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33.3(4)	.
어색하거나 지루한 분위기를 재미있게 해준다.	63.3(2)	50(1)
친구나 선배·후배 관계에서 서로 이해하고 친하게 된다.	36.7(3)	40(2)
말을 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진다.	40(5)	50(1)
화가 나거나 속상하고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있다.	13.3(6)	.
장점이 없다.	66.7(1)	16.7(3)
기타	.	.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경우 ‘장점이 없다.’라고 응답한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성인은 ‘어색하거나 지루한 분위기를 재미있게 해준다.’와 ‘말을 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진다.’ 문항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6) 유행어 사용의 단점

<표 10> 유행어 사용의 단점(중복체크문항) (n=60)

하위문항	경도 지적장애 성인(n=30)	일반 성인(n=30)
	%(순위)	%(순위)
유행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56.7(1)	70(1)
언어사용이 혼란스러워진다.	56.7(1)	53.3(2)
공부나 수업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23.3(3)	3.3(5)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어진다.	33.3(2)	20(4)
사람들마다 개성 있는 생각과 언어가 사라지게 된다.	10(4)	33.3(3)
단점이 없다.	10(4)	.
기타	.	.

5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2호)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유행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와 ‘언어사용이 혼란스러워진다.’에 응답한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일반 성인은 두 문항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서로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경우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어진다.’, 일반 성인의 경우 ‘사람들마다 개성 있는 생각과 언어가 사라지게 된다.’가 뒤를 이었다.

7) 유행어 습득을 위한 노력

<표 11> 유행어 습득을 위한 노력 (n=60)

하위문항	경도 지적장애 성인(n=30)	일반 성인(n=30)
	n(%)	n(%)
네	14(46.7)	3(10)
아니요	16(53.3)	27(90)

두 집단 모두 의식적으로 유행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유행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일반 성인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8) 유행어 습득경로

<표 12> 유행어 습득경로(중복체크문항) (n=60)

하위문항	경도 지적장애 성인(n=30)	일반 성인(n=30)
	% (순위)	% (순위)
TV	30(1)	20(4)
인터넷	20(2)	90(1)
친구(남자)	20(2)	33.3(3)
친구(여자)	30(1)	36.7(2)
선배·후배	3.3(4)	13.3(5)
가족	13.3(3)	.
기타	.	.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경우 30% 이상이 TV와 또래친구(여자)를 유행어 습득의 주요경로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일반 성인은 9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행어를 습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친구(여자)를 통해 유행어를 습득한다고 응답하였다.

9) 유행어 사용현상에 대한 생각

<표 16> 유행어 사용현상에 대한 생각 (n=60)

하위문항	경도 지적장애 성인(n=30)	일반 성인(n=30)
	n(%)	n(%)
사용해야 한다.	2(6.7)	.
사용하면 안 된다.	15(50)	1(3.3)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13(43.3)	29(96.7)

유행어를 사용하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사용하면 안 된다.’에 응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성인은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에 응답한 비율이 96.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일반 성인과 달리 유행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타 조사

1) 스마트폰 사용여부

<표 13> 스마트폰 사용여부 (n=60)

하위문항	경도 지적장애 성인(n=30)	일반 성인(n=30)
	n(%)	n(%)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28(93.3)	30(100)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2(6.7)	.

스마트폰 사용여부에 대해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93.3%, 일반 성인의 100%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2) SNS 활동여부

<표 14> SNS 활동여부 (n=60)

하위문항	경도 지적장애 성인(n=30)	일반 성인(n=30)
	n(%)	n(%)
SNS 활동을 한다.	28(93.3)	30(100)
SNS 활동을 하지 않는다.	2(6.7)	.

5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2호)

SNS 활동여부에 대해서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93.3%, 일반 성인의 100%가 SNS 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3) SNS 활동종류

<표 15> SNS 활동종류(중복체크문항) (n=60)

하위문항	경도 지적장애 성인(n=30)		일반 성인(n=30)	
	% (순위)		% (순위)	
카카오톡	83.3(1)		96.7(1)	
카카오톡스토리	26.7(3)		6.7(4)	
페이스북	50(2)		76.7(2)	
트위터	6.7(6)		.	
블로그	20(4)		6.7(4)	
인스타그램	10(5)		70(3)	
기타	3.3(7)		.	

SNS 활동종류에 대해서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카카오톡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페이스북으로 나타났다.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카카오톡스토리가 뒤를 이었으며, 일반 성인은 인스타그램이 뒤를 이었다.

3. 두 집단 간 유행어 사용특성

1) 유행어 친숙도 반응의 차이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성인 간의 유행어 친숙도 반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유행어 친숙도 반응 (n=60)

	경도 지적장애 성인		일반 성인		t
	M	SD	M	SD	
유행어 친숙도 반응	39.10	18.10	82.80	21.29	-8.564***

두 집단의 유행어 친숙도 반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일반 성인 집단 간의 유행어 친숙도 반응($t=-8.564, p<.001$)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 성인($M=82.80$)이 경도 지적장애 성인($M=39.10$)에 비해 유행어 친숙도 반응 점수가 높았다.

2) 유행어 이해능력 및 표현능력의 차이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성인 간의 유행어 이해능력 및 표현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유행어 이해능력 및 표현능력 (n=60)

	경도 지적장애 성인		일반 성인		t
	M	SD	M	SD	
유행어 이해능력	11.06	5.40	18.30	3.24	-6.280***
유행어 표현능력	9.03	5.41	19.23	1.47	-9.950***

유행어 이해능력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성인 간의 유행어 이해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t=-6.280, p<.001$), 일반 성인의 유행어 이해능력($M=18.30$)이 경도 지적장애 성인($M=11.0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어 표현능력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성인 간의 유행어 표현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t=-9.950, p<.001$), 일반 성인의 유행어 표현능력($M=19.23$)이 경도 지적장애 성인($M=9.0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각 집단의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이해능력 및 표현능력 간의 상관관계

<표 19> 유행어 친숙도 반응, 유행어 이해능력 및 표현능력 간의 상관관계

	1	2	3
경도 지적장애 성인	1. 유행어 친숙도 반응		
	2. 유행어 이해능력	.288	
	3. 유행어 표현능력	.402*	.652**
일반 성인	1. 유행어 친숙도 반응		
	2. 유행어 이해능력	.716**	
	3. 유행어 표현능력	.793**	.897**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일반 성인 집단 각각의 유행어 친숙도 반응, 유행어 이해능력 및 표현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은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이해능력이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rho=.288, p>.05$)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표현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ho=.402, p<.05$). 이와 더불어 유행어 이해능력과 유행어 표현능력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ho=.652, p<.01$).

일반 성인은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이해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ho=.716, p<.01$),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표현능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ho=.793, p<.01$). 유행어 이해능력과 표현능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ho=.897, p<.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일반 성인이 사용하는 유행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새로운 의사소통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생활연령이 일치하는 일반 성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유행어 사용인식 및 사용특성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성인 간의 유행어 사용인식을 비교해보았을 때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유행어 사용이유와 유행어 사용의 장점, 유행어 습득경로, 유행어 사용현상에 대한 생각에서 일반 성인과 차이를 보였다. 유행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미있게 말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일반 성인이 유행어를 구사하며 해학성을 의사소통 방식에 활용하는 방식(이현나, 김화수, 2013)을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모방하려는 경향이 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경도 지적장애 성인 대부분이 SNS 활동을 하며, 활동 내에서 일반 학생들과 교류가 이뤄지는데 일반 성인이 사용하는 유행어를 보게 되고 모방하려는 시도가 컸을 수 있다. 또한 유행어 습득을 위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 ‘네’라고 응답한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비율이 일반 성인에 비해 4배가량 높았다. 이 역시 일반 성인이 유행어를 사용하며 얻는 해학성을 의사소통 방식에 활용하는 방식을 모방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과 비교해 그들은 자연스럽게 유행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데 반해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유행어를 의식적으로 습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유행어를 사용하며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는 ‘장점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유행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유행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행어를 습득하는 경로에 있어서도 일반 성인과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 성인은 ‘인터넷’을 통해 유행어를 습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TV’와 ‘친구(여자)’를 통해 유행어를 습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인터넷’보다 ‘TV’를 통해 유행어를 더 많이 습득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지적장애 학생의 컴퓨터 활용분야를 연구한 김창배, 조규영(2011)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지적장애 학생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구체적인 목적 없이 포털사이트를 많이 활용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세부적이고 고차원적인 인터넷 활용 기능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문서작성, 타자연습 등의 일차원적인 인터넷 기능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경도 지적장애 성인에게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보다 TV가 훨씬 접근 효율성이 높은 매체로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행어를 사용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경우 유행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 성인의 경우 유행어를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일반적인 대화맥락 내에서 자유롭게 유행어를 구사하며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일반 성인이 사용하는 유행어의 뜻을 알아듣지 못해 또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적장애 성인의 유머와 창의적 인성에 대해 연구한 엄진명, 하주현(2014)의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 학생들은 낮은 지적능력으로 인해 또래 학생들이 사용하는 유머행동이나 농담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그로 인해서 대화의 단절이나 원만한 또래관계형성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볼 때,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일반 성인과 또래 의사소통관계에서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위치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소통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유행어 사용인식 및 사용특성을 살펴본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유행어 이해를 위한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교육을 위해서 또래 관계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평가와 증대 전략에 유행어 이해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성인 간의 유행어 사용특성을 비교해보았을 때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유행어 친숙도 반응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은 경도 지적장애 학생의 지적능력 결함 및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의 미숙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경도 지적장애 학생에게 유행어는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언어로 작용하고 그로 인하여 자주 사용하지 못해 더욱 생소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다음으로 유행어 이해능력 및 표현능력에서 역시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성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일반 성인에 비해 유행어 이해능력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유행어라는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은유, 비유, 함축 등의 어휘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결함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Highnam, Wegmann, & Woods, 1999; Nippold & Fey, 1983). 뿐만 아니라 합성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유행어는 어휘가 합쳐지기 이전, 원말의 뜻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반해 일반 성인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유행어를 접하는 빈도가 높아 덜 생소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일반 성인에 비해 유행어 표현능력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초기 언어습득 단계에서 언어이해력이 언어표현력보다 선행 발달하다가 발달 단계가 높아질수록 언어이해력과 언어표현력 간의 발달균형이 동등하게 이루어진다는 McLean과 Synder-McLean(1978)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언어이해력과 표현력의 발달균형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만큼 발달 단계가 높아졌으나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경우에는 언어발달 단계가 일반 성인만큼 발달하지 못하여 여전히 언어이해력이 선행 발달하고 언어표현력이 후행 발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유행어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성인 각각의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이해능력, 유행어 표현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유행어 사용특성 각 하위변인 중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표현능력, 유행어 이해능력과 유행어 표현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이 나타났으나,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이해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이 유행어 친숙 정도와는 상관없이 유행어에서 함축적인 단어나 내포되어있는 뜻을 파악하기 보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유행어에 친숙해져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일반 성인은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이해능력, 유행어 친숙도 반응과 유행어 표현능력, 유행어 이해능력과 유행어 표현능력 간 모두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반 성인은 자주 접한 유행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이 자기화 되었을 때 표현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이현나, 김화수, 2013).

본 연구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유행어 사용인식 및 사용특성을 살펴보는 첫 연구인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제한점 및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성인의 유행어 사용인식 및 사용특성을 조사할 때 관찰이나 면접을 통한 방식이 아닌 설문지를 통한 자기보고 형태로 진행되었다. 자기보고 형태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 거짓 보고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실제 유행어 사용인식 및 사용특성과 응답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 및 자발화 분석 등을 통해 조금 더 객관화된 질적 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유행어 사용인식 및 사용특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유행어가 언어연령과 생활연령 중 어느 변인에 더욱 가까이 접근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조금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유행어 사용인식 및 사용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7). [신조어의 세계]분명 우리말인데...외국어보다 높은 '언어 장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72120005&code=210100.
- 곽은하 (2005).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언어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은하 (2006). 독일 청소년언어의 기능: 어휘에 나타나는 특성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18, 257-281.
- 국립국어원 (2014). **2014년 신어**. 국립국어원 2014-01-59.
- 김동일 (2008).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계: 쓰기검사**.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창배, 조규영 (2011). 지적장애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 시간에 컴퓨터 활용분야 조사. **지적장애연구**, 13(2), 159-176.
- 김태경, 장경희, 김정선, 이삼형, 이필영, 전은진 (2012). 청소년의 비속어, 욕설, 은어, 유행어 사용 실태와 언어 의식 연구. **국제어문**, 54, 43-93.
- 배희숙 (2016). **언어발달**. 서울: 학지사.
- 엄진명, 하주현 (2014). 지적장애학생의 유머와 창의적 인성의 특징. **창의력교육연구**, 14(3), 73-90.
- 오진영, 이은주 (2014).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관용어 이해 능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4), 417-438.
- 윤자경 (2011). 청소년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제천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중심으로. 세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나, 김화수 (2013). 북한이탈 청소년의 의사소통을 위한 유행어 사용실태 및 사용특성 연구: 유행어 사용을 통해 본 북한이탈 청소년의 언어 적응 양상. **언어치료연구**, 22(4), 271-302.
- 이화영 (1999). 독일 청소년 언어와 광고언어: 어휘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영 (2016). 지적장애 학생의 속담 이해능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inton, B. & Fujiki, M. (1991). Responses to requests for conventional repair by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4*(5), 1087-1095.
- Ezell, H. K. & Goldstein, H. (2011). Effects of imitation on language comprehension and transfer to production i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4*(1), 49-56.
- Highnam, C., Wegmann, J., & Woods, J. (1999). Visual and verbal metaphors among children with typical language and language disorder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32*(1), 25-35.
- McLean, J. E. & Synder-McLean, L. K. (1978). *A transactional approach to early language training*. Columbus: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 Nippold, M. A. & Fey, S. H. (1983). Metaphoric understanding in preadolescents having a history of language acquisition difficultie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4*(3), 171-180.

<부록 1>

유행어 목록

1	감튀	26	너순너	51	솔까말	76	최애캐
2	개소름	27	눈갱	52	셜드치다	77	최하옵
3	개이득	28	닉변	53	심멧	78	취향 저격
4	개취	29	답정너	54	심쿵	79	츄데레
5	갠소	30	대프리카	55	쟁얼	80	치느님
6	갠톡	31	더럽	56	쌈	81	케미
7	고급지다	32	더부심	57	쏘다	82	쿠크깨지다
8	고나리질	33	돼지맘	58	야자	83	쿨몽동이
9	고답이	34	듣보잡	59	어그로꾼	84	키큰남
10	곰손	35	맛저	60	어깨 짱패	85	털다
11	관중	36	먹부심	61	여사친	86	톡디
12	그린라이트	37	먹스타그램	62	여친짤	87	통치다
13	극혐	38	버카츄	63	열정페이	88	패완얼
14	근자감	39	베댓	64	열폭	89	폐메
15	금사빠	40	부먹	65	오구오구	90	평타취
16	까다	41	빋삭	66	위꼴샷	91	피겨슛
17	깜놀	42	빠충	67	유리멘탈	92	핵꿀잼
18	깨알	43	빱치다	68	인생짤	93	허니잼
19	꽃신	44	뿡가다	69	입씹	94	헐
20	남사친	45	생과	70	저퀄	95	현웃
21	낫닝겐	46	세젤예	71	존맛	96	혐짤
22	낫저밤이	47	셀기꾼	72	진지병	97	호갱님
23	넙사벽	48	셀피	73	짱멋	98	혼밥
24	노관심	49	성장	74	찢다	99	훈녀생정
25	너섹남	50	소오름	75	찍먹	100	흑역사

A Study of Fad Words Recognition and Usage Characteristics of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Cheon, Jeong-Min · Kim, Wha-Soo · Rhee, Kun-Yong

Daegu University · Daegu University ·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d words recognition and usage characteristics of ordinary adults with a social and cultural point of view.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N=30) and age matched adults with no specific disability (N=30)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fad words recognition between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nd ordinary adults such as the reason for using fad words, advantage of using fad words, the way of learning, thoughts on the phenomenon of using fad word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usage characteristics of fad words. The fad words familiarity response, understanding ability of fad words and the score of expression ability of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lower.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fad words familiarity response and the understanding ability in the sub-variables of the characteristic of using fad word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fad words familiarity response and fad words understanding ability and expression ability of each group.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re becoming familiar with the fad words, as they understand the vocabulary that appears superficially, rather than attempting to grasp implicit words or implied meanings of the fad words, regardless of the level of fad words familiarity.

This showed that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were more likely to have different fad words recognition and insufficient usage characteristics, and suggests that proper language education for understanding fad words is necessary for smooth peer communication.

Key Words :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fad words, fad words recognition,
fad words usage characteristics

논문 접수: 2017. 03. 05 심사 시작: 2017. 03. 10 게재 확정: 2017. 04. 10